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순 레 자

발행인: 이종윤
편집인: 나희주
편집주간: 원필현
발행처: 서울 장로교회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 화: 517-7651~5
F A 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전 2000운동 발전

-복음 증거로 사명받은 천국시민의 역할다해야-

인류의 우상이 되어왔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면서 추종자들은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가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상실한채 세기말적인 혼란에 빠져있다.

지난번 우리교회를 방문했던 구소련 장성들은 소련의 젊은 병사들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자살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이를 치유할 방법은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며 그 새로운 가치란 영혼구원 밖에 없다고 우리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이 어찌 소련 병사들에게만 국한된 일인가.

21세기를 바라보는 뜻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이러한 허무주의는 비단 소련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지구촌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염려하고 있다. 세상의 가치는 결국 변하게 마련이고 영원한 것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우리들, 특별히 한국교회의 갱신과 세계선교를 비전으로 받은

서울교회는 이토록 압당한 현실과 곧 닥쳐올 21세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최우선 명령인 복음전도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비전 2000운동」을 전개한다. 인구의 1/4이 크리스찬이라는 것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부분 한국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아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세계 곳곳에 복음의 서부지대가 산재해 있음을 알고 우리들은 교회의 요람에서 뛰어나와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1991년 10월을 기억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울부짖었던가? 아니 왜 우리는 생업을 포기한채 밤낮으로 교회에 몰려왔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삶이 무의미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갈급한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안타까움으로 돌아가서 불나비처럼 지옥불로 달려가는 귀한 영혼들을 시급히 구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내영혼의 은총만을 찬송하고 있다면 책망

받을 일이다. 우리는 「사명받은 천국시민」의 주체성구를 깊이 깨닫고 그 행동강령에 따라 이번 비전 2000운동 기간만이라도 한마음으로 빈틈없이 실천하여 21세기를 책임질 서울교회가 21세기가 이르기전에 지구촌의 어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며 천국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자 구제의 세기등을 확고히 세워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교회 전성도들은 쉬임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며 거듭난 영혼의 바른 성장을 위해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에따라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적극 참여하여 가정과 이웃과 세계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나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하자.

천금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 일생 최대의 정열을 쏟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자.

자신은 모범을, 이웃에게 복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학교의 VISION 2000운동

초등부는 이미 42일간 총동원 초청잔치를 추진중이다. 8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는 10월 10일 어린이협회 변규정 목사의 특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중등부와 고등부는 10월 3일(주일)에 합동으로 청소년의 문화와 현실에 대한 심각성을 부

각시키고자 낮은올타리 발행인 신상언 집사를 모시고 ROCK음악과 뉴에이지 운동 등에 침투한 사탄의 실체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다. 이 특강으로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 진도에 절실함을 갖게 될줄로 믿는다. 또

교회의 비전 2000운동 일정에 맞추어 제반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일체감을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소망부, 새가족부, 대학부 등 각 교회학교마다 기도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 전도마다 성령의 역사가 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쪼록 비전 2000운동에 교회학교뿐 아니라 전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회 창립 2주년에 는 전도의 열매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한다.

창세기강해



이종윤 목사

첫번째 결혼식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창2:22-25)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어 가정이라고 하는 귀한 제도를 허락해주셨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이름답지 않아서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가정은 이 사회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최소의 단위입니다. 가정이 병이 들게 되면 사회가 병들게 되고 사회가 흔들리며 국가, 민족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고로 가정이 교회와 더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누차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고 정당한 가정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앞에 깨끗하고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가정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현대교회가 하나님앞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위기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한 가정의 파탄은 사회적인 파탄과 전체적인 파탄을 가져오기에 가정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주관을 정해 놓고 그 기간동안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기 도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현대인의 가정이 왜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는가를 분석해 보며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1. 자유분방한 쾌락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자유분방한 쾌락주의가 이 사회를 꼭 채우고 있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감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현대인들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까지 도입이 되서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 쾌락의 대상으로 만나는 정도로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그 대상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철학은 잘못된 신학에서 기인된 것인데 플레처(Joseph Fletcher)가 쓴 '상황윤리'라는 책이 이런 무서운 일을 가져왔습니다. 상황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윤리의 규범을 사랑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합리화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에 깊숙히 침투되어 기독교 신앙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여 교회로부터 권장이 되고 잘못된 신앙이 온세계를 뒤집어 놓게 되었고 간음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결혼 생활을 파괴 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정을 승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은 이렇게 되지 못하고 이기심에서 출발되어 결국 자기 이권에 배치될 때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고 자기 이익에 손해가 날때는 그 가정을 파탄시키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 형편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앞에서 온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배버리고 자기 이익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계산하니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현대인 가정의 모든 문제는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진정한 사랑과 봉사와 섬김이 결여되어 있는 이유는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혼생활에서 굴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섬김의 도리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들난 사람으로서, 신자로서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진다는 말입니다.

2. 한 몸을 이루어라.

가정의 충돌과 마찰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24하)입니다.

분명히 행복한 가정은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가 될 것을 말해주었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 하니라"(25절)에 대답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의 인간은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치심이 없었다는 그 단계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감사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하나님과의 문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앞에 자유롭게 나설 수가 있었으나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한 그들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앞에 서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고만 것입니다.

(2) 서로 부끄러워함.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상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피차를 용납할 수 있다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벌거벗은 부부가 서로 부끄

러워 아니하는 것은 이와같은 진리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남녀는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고 준비할지 모르나 시간이 갈수록 진실된 내면의 세계가 표현될 때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외형적인 것은 부끄러움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들이 벗은 것을 수치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3) 자신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으나 죄를 범한 후 자신을 보기가 민망했던 것입니다. 옷은 입었으나 실제로는 벌거벗은 수치를 느껴야했던 이유는 죄값입니다. 이 수치는 인간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으로 치유를 받아야 할 수치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떠난 무화와 나무의 앞으로는 면할 길이 없던 수치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은 후에 비로소 세상에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피흘림의 상징이며 이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앞에서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셨으므로 그 안에서 은혜로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 용납을 받았습다. 이와같이 모든 죄가 우리 가정에서 물러갈때 진정한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축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수의 이름으로 공익에 반한 단체 행동을 하여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횡포로서 가장 지탄받아야 할 이기주의인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행된 작금의 약국 집단 휴업 사태를 보는 시민의 시각은 해도 너무 한다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집약된다. 스스로 약사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자유이나 과연 그들이 영원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될만큼 위대하고도 절대적인 대의명분이 있느냐는 질문을 스스로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집단이기주의는 세상의 일일때도 분노를 느끼지만 천국시민을 지향하는 교회에서까지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입으로 변명할 수 있으랴! 우리는 다수의 횡포를 보아왔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고통을 받고 있다.

어느곳을 찢어도 구멍물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기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 휴업을 하는 한심한 사람들을 욕하기전에 하나님의 복을 위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권위를 확고히 하기위해 모함하고 방해하는 행위부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여야 할 것이다.

사랑부 학습예식이 있던 날

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주일 사랑부에서는 17명의 학생이 학습을 받았고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았던 2명이 입교를 했다. 3부 예배가 끝난후 이종운 목사님의 집례로 이루어진 이날 학습식에 참석한 부모들과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이에 앞서 이들은 문답을 통하여 서약하였는데 “예수를 믿습니까”,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하는 물음에 한결같이 아멘으로 답하였다.

이로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학습교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문답한 모든 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부가 복된 기관이 되도록, 또 육신은 비록 자유치 못하지만 그 영혼이 자유하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한 교사들의 땀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육신과 함께 정신을 여겨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고 가르쳐서 학습을 할 수 있기까지 지도한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피택장로 7인과의 만남 (I)

이남호 집사



섬김의 자세로 성실히

편집자註 : 순례자에서는 지난 5월 9일 공동의회를 거쳐 피택되어 11월 마지막 주일 안수식을 갖게 될 7인의 장로를 차례로 만나 보기로 하였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 장로로서 봉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지만 서울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로로 피택된 이후 지금까지 당회의 지도 아래 장로로서의 소정 교육을 받으며 성경공부에 충실하고 있다는 이남호 집사님의 소감이다.

어린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중간중간 교회를 멀리 하였을 때도 있었다는 집사님. 그러나 서울교회에 오신 이후 신앙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 집사님을 알고 계신 사람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7인의 피택장로중 가장 연장자인 집사님은 현재 남선교회 회장, 건축위원, 재정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 열(熱)과 성(誠)

이 오늘의 피택장로로 이끈 것이리라.

한아기업과 호텔을 경영하시면서 여육기권사님과의 사이에 3남 1녀를 두고 계신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여육기집사님도 마찬가지라고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택장로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기쁘고 이제는 섬김의 자세로 맡으신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시기만을 바라며 저는 오직 곁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은 권사님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서울교회 온 성도의 바람이다. 이남호 집사님은 서울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회건축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것을 부탁하였다. 보다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그런 측면에서 이남호 집사님은 서울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계실 줄 믿는다.

7·8교구 전가족 모임

우리교회 7교구(교구장 : 김대호 집사) 8교구(교구장 : 유윤진 장로)는 오는 10월 9일(토) 오후 2시에 용산에 위치한 용산가족 공원에서 전가족 야유회로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을 통해 7·8교구 전가족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동시에 가족 가운데 불신자들과

이웃의 불신 형제 자매들을 적극 참여시켜 더불어 교제하며 전도하는 기회를 삼고자 한다.

이번 전가족 모임을 위한 주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갈 6:2). 주제찬송에는 “네 말과 정성을 다하여서”(369장)로 정했다.

정정합니다.

지난호 2면에 실렸던 이종운 목사님의 원고 제목은 “모든 것이 가하나이다”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입니다.

목회자 동정에 이종운 목사님의 방송설교 시간은 7시부터 7시 30분까지가 아니고 9시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순례자칼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최병호 전도사

우리말 가운데서 참으로 정감이 가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일 것이다. 우리말의 “우리”는 나와 너를 포함한 공동체를 뜻한다. 또한 이것은 개인을 뜻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민족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처럼 개인의 단위, 가족의 단위, 국가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가 넓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그대로 21세기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만큼이나 큰 변화를 겪은 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변화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지극히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보수적 성향이 어느 민족보다 강한 우리는 시대적 요청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그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변화의 욕구는 있으나 이것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너희에게서 라는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데서 우리 시대의 변화의 요청은 사실 요원한 것이다. 물론 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고 시간은 또한 세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 좀더 밀도 있는 단어를 쓴다면 변혁을 바라보며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얼마나 부정과 불의와 부조화가 극렬했는가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가올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는 문제를 노출시키고 진단은 하였지만 그것을 개혁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만 것이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 문제를 적용해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항상 믿어왔고 스스로를 위안해 온 것이다.

오늘 현실에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아직도 더 많은 것이 묻혀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범죄자 내지는 방조자요 또한 피해자인 것이다. 스스로가 지은 죄를 스스로가 욕하며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질 것인가. 돌을 든 손으로 자신을 쳐야 할 것이다. 돌을 든 자신의 손이 부끄러운 줄 알면 조용히 손을 내리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이글거리는 분노의 눈을 풀고 저주하던 입술을 다물어야 하며 쥐었던 주먹을 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다. 어떤 정책도 구호도 시대적 요청도 소망이 없다. 소망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만 있을 뿐이다. 그외에 어떠한 힘으로도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안에서는 무한한 소망이 있다.

* 중, 고등부 연합특강 실시

교회학교 중등부에서는 10월 3일(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층 예배실에서 낮을 울타리 발행인인 신상언 집사를 모시고 특강을 실시한다. 이 특강은 고등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학생은 물론 학부모 및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



(강의내용)

- 1) ROCK 음악의 실제
- 2) 뉴 에이지 운동
- 3) 사탄의 침투현황

* 유년부 10월 총동원 전도

10월 3일부터 매주일 예배후 교사노방전도 실시하고 교회로 인도, 교육과 교제를 하며 10월 30일 토요일 떡볶이 잔치, 10월 31일 주일 총동원 초청잔치 실시하는데 지금까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근처 학교에서 노방전도를 해왔다.

* 초등부 42일간 총동원 전도잔치(8월 30일 - 10월 10일까지)

지난 8월말부터 전도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10월 10일에는 총동원 초청주일로 변규정 목사(어린이협회)를 모시고 특강을 실시한다.

* 사랑부 학습식

사랑부는 9월 26일 주일 이종윤 목사님을 모시고 학습식을 실시하였다. 개교 1년 동안 쌓은 성경지식으로 믿음이 성장하였음이 문답을 통해 인정되어 특별 학습식을 베풀것이다. 이번 특별학습식에서는 17명의 학생이 학습을 받았다. 사랑부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때 고무적인 일이다.

* 소망부

10/24(주일): 아와 기도회 예정(학생, 교사 동참)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안내

이종윤牧사는 극동방송의「나 방송설교는 오는 10월 8일의 갈길 다가도록」이란 프로를 (금)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통하여 방송설교를 새롭게 시작 부터 9시 30분까지 30분간 진행 한다.

* 금주의 목회자 세미나 안내 *

제 1 교 시 14:00 - 15:30(90분)	일시	제 2 교 시 15:50 - 17:20(90분)
성경적 교회성장 원리	10월 4일	파니(C.G. Finney)의 설교와 영성 원 중 천 교수 ●아세아신대
이 종 윤 목사 ●서울장로교회 ●Ph. D., Univ. of St. Andrews, (영국)	11일	손양원의 목회와 경건 이 만 열 교수 ●숙명여대



☐...비전 2000운동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 시대의 사도처럼 전도의 역군이 되자.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2. 목회자 세미나의 은혜스러운 진행을 위하여.
3. 비전 2000운동이 순조롭게 전개되도록.

■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 예배	오후 5:00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 교회약도

